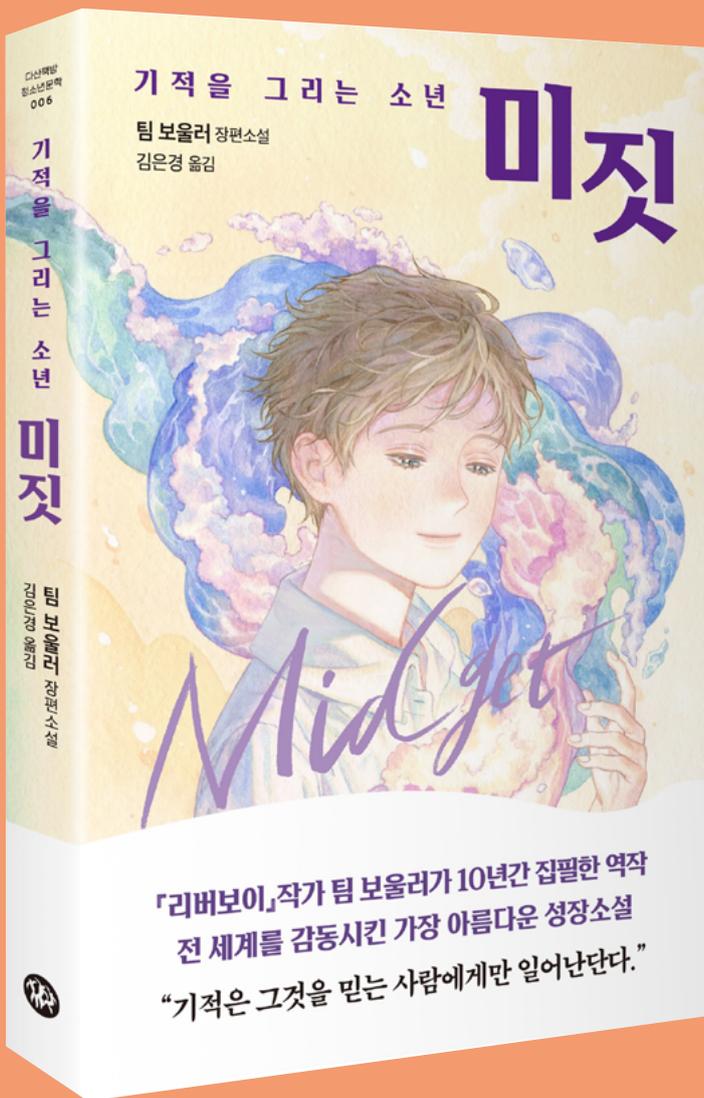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미짓** 기적을 그리는 소년

팀 보울러 장편소설

주제어: 기적, 꿈, 판타지, 용서, 자존감, 성장

## • 책 소개

『해리포터』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카네기 메달을 수상한 『리버보이』로 성장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 팀 보울러. 그가 습작생이었던 시절,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가가 되리라는 열망과 진심을 쏟아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다. 키가 자라지 않는 몸, 더듬거리는 말소리, 시도 때도 없는 발작과 경련, 형의 계속되는 학대까지... 상처투성이인 열다섯 살 작은 소년 미짓의 꿈과 좌절, 분노와 용서의 하모니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 • 학습 목표

- ① 작품의 활용된 중심소재 및 인물의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제시된 복선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작품 속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생각 열기
2	읽기 중	[17~65쪽]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 공감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소설의 결말 예상하기
3		[65~114쪽]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간 관계 및 상징성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자신의 꿈 소개하기
4		[115~175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인물 행동의 상징성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예상하기
5		[176~227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말에 내포된 의미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 인물의 갈등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소재 및 인물의 정체 파악하기
6		[228~259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비판적 읽기) 인물 심리 공감하기+인물의 말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4.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예상하기
7		[260~281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이름에 담긴 상징성 파악하기 4.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문맥적 의미 추론하기
8		읽기 후 활동

※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다음 영상을 보며 요트 경기에 대해 알아보시다.

▶ 참고 동영상: 하지만, 7위 기록...한국 요트 올림픽 최고 성적!

<https://www.youtube.com/watch?v=sUjJhDrQk1Y&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34>

2. 여러분의 요트를 상상해 봅시다.

▶ 노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

▶ 여러분의 개성을 담아 노트의 뜻을 디자인해 보고 디자인의 의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다음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참고 동영상: 갖고 싶은 초능력 TOP 10

<https://youtu.be/lqNheJq0guQ?si=-2NP69A85N6RbgKx>

---

---

---

4. 이 소설은 증오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했던(혹은 미운)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

---

---

---

## 1. 괄호를 채워 등장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 ▶ 미짓의 형 ( )은/는 친구인 ( )와/과 함께 미짓을 괴롭힌다.
- ▶ 미짓은 ( )만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 ▶ 언제나 미짓을 받아주는 ( )은/는 ( ) 박사에게 미짓의 발작 증상 치료를 의뢰한다.

## 2. 다음 영상을 보고 &lt;보기&gt;의 장면에서 '미짓'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참고 동영상: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4. 어떤 시선  
[https://youtu.be/OcFtdJtctyQ?si=SOXDZgj\\_dJDQwZaa](https://youtu.be/OcFtdJtctyQ?si=SOXDZgj_dJDQwZaa)

## 〈보기〉

미짓은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곧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에게는 제대로 화를 낼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때 근처에서 키득거리는 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아이 두 명이 미짓을 쳐다보면서 팔꿈치로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대고 있었다. 그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미짓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고개까지 돌린 채 대놓고 훑어보았다. 미짓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하나하나를 맞받아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뭐 물어볼 거라도 있으신가요?”

가볍게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조롱에 맞서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흘끔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이 타워힐 역에 내릴 때까지. 물론 그들이 내리자마자 다시 무표정한 가면을 뒤집어썼지만. 미짓은 자신을 결눈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못생기고 이상하고 혐오감을 주는지,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비틀린 몸과 근육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쾌한지 다시금 떠올려야 했다.

미짓은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왔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34~35쪽)

---



---



---



---

3. <보기>에 제시된 ‘그 요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미짓이 ‘그 요트’에 집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한두 번쯤. 최근엔 더 심해졌어. 그 요트를 보겠다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요트를 왜 가질 수 없는지 아버지가 수없이 설명해 줬는데도 말이야. 제니, 너도 이제 그 이유를 알겠지? 그런데도 이 녀석은 계속 그 보트를 보러 몰래 집을 나온단 말이지. 게다가 그 요트는 완성품도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꼴로 방치될 게 분명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지. 직공들이 몇 주 전에 손을 떼더니 그 후로 그 요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63쪽)

**지도 TIP**

<보기>에서 드러난 요트의 특징과 미짓과의 공통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보기>에 제시된 셉과 미짓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설의 결말을 예측해봅시다.

<보기>

미짓은 천장의 검은 그림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손이 너무 후들거려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 낼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다. 오후에 그런 소동을 겪었으니 오늘만은 셉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미짓은 눈을 감았다.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희망은 항상 어긋나게 마련이다.

셉은 잊지 않았다. 그는 어김없이 미짓을 찾아왔다. 미짓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미짓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65쪽)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각 질문에 적절한 답을 연결해 봅시다.

## 〈간단 퀴즈〉

- ① 제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 ② 제니의 반려견 이름은?
- ③ ‘미러클 맨’의 본명은?
- ④ ‘미러클 맨’이 바다를 일컫는 말은?

## 2. 노인이 미짓의 말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 〈보기〉

“이…… 이……?”

“그러니까 성별이 뭐냐고? 말하지 않았냐? 이걸 남자야.”

“어…… 어……?”

“어떻게 아냐고?”

노인은 마침내 붓을 페인트 통에 담갔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다.”

노인은 미짓의 말을 아주 쉽게 알아들었다. 미짓은 요트 뒷부분 주변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문득 선미판을 쳐다보았다. 이번에도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고도 미짓이 뭘 하는지 아는 듯했다.

“넌 아직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어. 그는 아무한테나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 내가 알려주는 것도 원치 않지. 그가 선장을 보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가 제대로 물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 (94쪽)

## 지도 TIP

아직 노인과 미짓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본 활동지의 활동을 마친 후 다시 돌아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하면 보다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미짓은 그런 말을 하는 박사를 노려보면서 그 칼이 박사의 손을 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깐의 상상 속에서 박사가 내지르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점점이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이 보였다. 하지만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물론 핏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중략) 하지만 미짓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빨간 핏방울이 카펫 위로 푹푹 흘러내리는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꽃병의 물이 붉게 변하던 그때처럼. 미짓은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의 시끄러운 굉음도 서서히 희미해졌다. 미짓은 그 그림에 점점 더 마음을 뺐졌다. 그리고 점점 더 간절히 바라게 됐다. (107쪽)

미짓은 두 눈을 감았다. 그 그림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다.

“복수하고 싶은 바람이랄까.”

맞아요. 복수. 셉과 그리고…….

“이런, 제길!”

날카로운 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편지봉투용 칼이 책상 위를 데굴데굴 구르다가 카펫 위로 떨어졌다. 미짓의 두 눈에 손을 위로 치켜든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박사의 집게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나도 참 멍청하지. 날카롭다는 걸 잊어버리고 항상 칼날을 만지작거린단 말이야.”

박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미짓을 향해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미짓은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박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마음속 그림은 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현실이 됐으니까.

미짓은 전율했다. (110쪽)

3-1. 미짓의 ‘마음속 그림’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봅시다.

---

---

---

3-2. 마음속 그림은 언제 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

---

---

3-3. 이 장면에서 드러난 미짓의 능력이 소설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

---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이 애가 원하는 건 오로지 항해밖에 없어요. 유일한 열정이죠. 이 녀석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망상을 품으니 말입니다.”

미짓은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패티슨 박사를 보았다.

강건하고 슬퍼 보이는 한 얼굴과 활기와 감정이란곤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얼굴. 둘 다 자신과는 동떨어진 얼굴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장미 꽃병에 담긴 깨끗한 물이 꽃잎처럼 점점 붉게 변하는 환상을 목격했다.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새빨간 피처럼. 그리고 급기야 그 붉은 물이 자신의 몸 안으로 쉴 새 없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은 점점 넓게 퍼졌고, 결국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강어귀의 영상과 합쳐졌다.

여전히 물은 붉었다. 이번에는 요트도 보이지 않았다. (74쪽)

4-1. 여러분에게 밀줄 친 부분과 같은 꿈이 있다면 그 꿈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

4-2. 꿈을 이룬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친구들과 함께 감상해 봅시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이 소설에 등장하는 요트의 이름을 정리해 봅시다.

- ▶ 셉의 요트 이름은 (            )이다.
- ▶ 네드의 요트 이름은 (            )이다.
- ▶ 미짓의 요트 이름은 (            )이다.

## 2. &lt;보기&gt;의 장면을 고려하여 미짓의 요트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보기〉

“그, 그…… 그야!”

다른 사람들이 미짓을 쳐다보았다.

“그…… 그…… 그야!”

미짓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을 느끼며 숨을 헐떡였다.

“그라고? 모든 선박은 여성형 대명사로 불러야 하는 거(영어의 문법 규칙이다-웁킨이) 알잖아.”

셉이 말했다.

“이름은 이미 지어진 것 같아. 아까 선미판에 새겨진 글자를 봤거든.” (중략)

“요트 이름으로는 이상하다.”

마지막의 말이였다.

미짓은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미짓이 다가오는 동안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짓의 캔버스화가 요트장 판자 위를 가볍게 밟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미짓을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미짓은 무릎을 꿇고 앉아 선미판에 휘갈겨진 글자를 응시했다. 아마도 단어를 읽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며.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도 자연스럽게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짓은 한 번도 더듬지 않고 큰 소리로 그것을 읽어냈다.

“미러클 맨.”

## 지도 TIP

미짓이 요트를 여성형 대명사가 아닌 남성형으로 부른다는 점, 노인과 요트의 별명이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물음에 답하여 미짚의 발작 증상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결국 네 요트를 갖게 됐군. 그런데 말이야, 발작을 일으킬 때 내가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미짚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근육이 경직됨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이 바로 썸이 원한 것임을 깨달았다. 미짚은 근육에 힘을 줬지만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온몸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큰 물결이 앞 갑판을 덮치면서 요트 한쪽을 거세게 휩쓸고 갔다.

“너 같은 녀석은 항해를 하면 안 돼. 미치광이한테 요트를 주는 건 위험하거든.”

근육이 더 세게 반응했다. 미짚은 점차 통제력을 상실했다. (149쪽)

이제 속도의 차이는 확연해졌다. 미짚은 계속해서 썸을 앞질러 갔다. 거리가 꽤 벌어졌다. 미러클 맨이 다시 기울어지자 미짚은 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사이 몸의 떨림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생 처음으로 발작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150쪽)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만약 살아 계셨다면…….”

갑자기 경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미짚은 고통 때문에 몸을 구부렸다. 붉게 빛나던 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171쪽)

**3-1. 미짚의 발작 증상은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생각해봅시다.**

---

---

---

**3-2. 미짚의 발작 증상의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

**3-3. 3-2의 답을 고려하여 ‘항해’가 미짚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

---

4. 밑줄 친 ‘거대한 짐승’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해봅시다..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설령 네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해도 말이야, 엄마는 널 증오했을 거야. 알겠어?”

미짓은 발작이 시작되고 있음을, 게다가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차렸다. 머리카락 맨을 떠올리려고 해봤지만, 머리엔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셉의 존재가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있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짓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그려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흥한 벌레 한 마리가 거대하고 강력한 짐승의 입을 향해 꿈틀꿈틀 기어가는 광경이 떠올랐다. 너무도 거대한 짐승이라 물리칠 수도 없고, 그 손아귀에서 도망칠 수도 없을 것 같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몸의 근육을 따라서 끔찍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짓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신음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자신의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한쪽 손이 자신의 입속을 헤집기 시작했고 입이 제멋대로 그 손을 깨물기 시작했다. 계속 손을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다시 입으로 돌아왔다. 미짓의 손이 미짓의 의지를 비웃고 있었다. 눈이 빙글빙글 돌았다. 빛의 작은 입자들이 주위에 흩뿌려졌다. 미짓은 달빛 아래에서 유령의 얼굴처럼 빛나는 레이저트의 수면을 잠깐 떠올렸다. 그러나 잠시 후, 거대한 짐승이 검은 입을 벌리며 다가와 미짓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175쪽)

---



---



---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다음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 ▶ 미짓은 감자칼로 형을 위협했다. (O / X)
- ▶ 미짓은 기적을 일으켜 형과의 요트 경주에서 승리했다. (O / X)
- ▶ 미짓은 형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차도로 뛰어 들었다. (O / X)
- ▶ 미짓은 형에 대한 복수로 죽은 고양이 시체를 형의 요트 앞에 두었다. (O / X)

## 2. &lt;보기&gt;에 제시된 미짓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봅시다.

## 〈보기〉

당신 이름은 미러클 맨이죠. 그럼 그 미러클 맨은 도대체 누구죠?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자 말이에요.

다른 요트들이 공간을 다투며 부표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부표를 제일 먼저 든 사람은 셉이었다.

당신인가요? 아니면 조셉 노인인가요?

돌풍이 다시 불었고 미짓의 요트가 물마루를 타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니면 나예요? (194~195쪽)

---



---



---

## 지도 TIP

단답형으로 말하기보다는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타당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3. 206~227쪽을 읽고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미짓의 내적 갈등 양상을 정리해봅시다.

## 〈보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네드였다. 셉은 구조되자마자 몸을 바르르 떨다가 레이더의 앞 갑판에 구토를 했다. 구조대원들은 셉을 끌어당겨 구조선에 태우고 스콜피언의 뒤통리를 위해 급하게 출발했다. 노를 젓던 남자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미짓은 시선을 돌렸다.  
안도하는 동시에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220쪽)

**내적갈등**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한 인물의 내면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양상.

	VS	
--	----	--

**지도 TIP**

〈보기〉에 제시된 부분은 힌트일 뿐이므로 〈보기〉만을 참고하여 작성하기보다는 발문에서 제시된 부분(206~227쪽)을 모두 읽고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형상의 정체와 그것이 미짓 앞에 나타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1〉**

“선장에게…… 나쁜 기적을…… 바라지 마…….”  
 미짓은 동상처럼 멈춰버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노인의 입가로 침이 줄줄 흘러내렸다. 미짓은 손수건을 꺼내 침방울을 닦아냈다.  
 “항상 선장을 행복하게 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선장이 싫어하니까.”  
 노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미짓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말들을 무시하려고 애쓰면서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미짓은 머지않아 그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설령 네가 나쁜 기적을 원한다 해도…… 완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믿으면…… 그걸 얻을 수는 있어. 다만 대가가 따라오지.”  
 노인이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악이 뒤따라온다.”  
 노인의 짓무른 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짓을 응시했다.  
 “애야, 악은 죽음 전에 나타난단다. 망령처럼.”  
 미짓은 뒤로 물러섰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에 서린 섬뜩한 기운에 덜컥 겁이 났다. (127~128쪽)

〈보기 2〉

20미터 정도 앞에 션이 있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 형상.

션이었다. 션이 틀림없었다. 지독하고 비열하고 소름끼치는 션.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션은 병원에 있지 않은가.

미짓은 두 팔을 뻗어 그 형상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걷는 속도를 높였다. 그러자 그것이 미짓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봤다. (227쪽)

---

---

---

---

---

---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다음 괄호를 채워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 ▶ 미짓이 패티슨 박사에게 “제가 미쳤나요?”라고 물은 것은 ( ) 때문이다.
- ▶ 제니가 해안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은 ( ) 때문이다.
- ▶ 미짓이 제니에게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 ) 때문이다.

## 2. &lt;보기1&gt;에서 등장한 형상의 정체와 의미를 사건이 한참 진행된 후의 &lt;보기2&gt;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형상의 의미를 밝히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 〈보기 1〉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엄마도 대답해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뭔가 잘못됐어.

누군가가 해안 독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똑바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기묘하게도 익숙했다. 상대방은 왼쪽도 오른쪽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걸어왔다. 미짓은 그가 해안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얼굴을 알아봤다.

말도 안 돼. 셉은 제니와 나갔잖아. 저녁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맞아, 셉이 여기 있을 리 없어.

미짓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그 팔을 꼭 붙잡았다. 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미짓을 내려다보았다.

“왜 그러니? 괜찮아?”

미짓은 진흙 독을 뒤돌아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어느새 그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172~173쪽)

## 〈보기 2〉

“찾았어! 내가 읽어줄게.”

박사가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망령: 유령이나 환영. 특히, 살아 있는 사람 혹은 살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환영으로서, 그 사람이 죽을 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짐.” <중략>

그런데 미짓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둠이 아니었다. 유령 같은 세 번째 형상이었다.

진흙 위에서 있던 바로 그 형상. (236쪽)

---

---

---

---

---

**지도 TIP**

소설의 중간 부분인 <보기2>에서 셉의 형상을 등장시킨 후, 그 형상이 의미하는 바를 소설의 구성 단계 상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보기1>에 가서야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보기2>의 ‘형상’이 소설의 뒷이야기를 암시하는 복선이자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소재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연주에 내 마음이 묻어났다는 거야. 곡은 아주 훌륭하게 연주했지만, 연주에 그 곡을 싫어하는 내 마음이 담겨 있었대.”

제니는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쉽다고 하셨어.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내 안에 있는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그 싫은 점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말이야.”

미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246~247쪽)

**3-1. 소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니의 말은 미짓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추측해 봅시다.**

---

---

---

---

**지도 TIP**

뒷이야기에 대한 추측이나 제니의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 등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2. 밑줄 친 부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

---

---

4. <보기>의 밑줄 친 새로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선장.

푸른빛으로 넘실거리던 물이 미짓의 살결을 간질였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내 적이 누군지.

마침내 미짓은 물속에서 빠져나와 깨끗한 진흙 위에 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비로소 몸을 돌려 자신이 버려져 있던 곳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칙흑처럼 어두운 그곳.

이제는 알아요, 내 적이 누군지.

새로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졌다. 의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도 없었다. 마음속에 남겨진 유일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림은 한없이 펼쳐졌다.

증오. (258쪽)

---

---

---

---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다음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 ▶ 제니는 미짓이 미러클 맨을 갖게 된 후 그에게 어떠한 힘이 생겼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O / X)
- ▶ 패터슨 박사는 미짓의 아버지에게 미짓이 셍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O / X)
- ▶ 미짓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이라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O / X)
- ▶ 사고 이후 셍은 일종의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O / X)

## 2. 미짓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추측해 보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러나 셍은 움직이지 않았다.

요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레이더가 사고 현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빨리! 어서 와서 도와!”

네드가 소리쳤다.

그러나 미짓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요트의 방향을 바꾸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이제 다 끝났어. <중략>

바다가 미짓을 이끌었고, 미짓은 기쁨을 즐길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 그 손짓에 응했다. 먼 바다로, 더 먼 바다로.

하지만 진수대 근처를 지나는 그 순간, 미짓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질 것만 같았다. 미짓은 의아스러워졌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도대체 왜. (265~267쪽)

---



---



---



---



---



---



---



---

## 지도 TIP

셍과 미짓 사이의 다층적으로 얽힌 관계(셍에 대한 미짓의 증오,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는 미짓의 죄책감과 셍의 원망과 분노, 형제라는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로 인해 발생한 미짓의 복잡한 심리상태에 주목하여 셍에 대한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미짓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3. 다음 부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었다.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았지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페인트 통을, 다른 손에는 붓까지 들고 있었다. 머리 위의 모자는 수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분의 이름은 조셉이다. 우리는 기적의 사나이, 미러클 맨Miracle Man 조셉이라고 부르지.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될 거다.” (91쪽)

의사는 양미간에 힘을 주며 말을 잠시 중단했다.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지만, 간호사 말로는 누군가에게 계속 용서를 비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니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글쎄,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더군요. 조셉……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계속 조셉을 찾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아버지가 조용히 앞을 응시했다.

“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셉을 잘 알고 있죠. 지금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제니가 다시 창가로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저요, 제가 알아요.” (278쪽)

---

---

---

---

---

#### 지도 TIP

미러클 맨과 미짓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상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해초에 얽혔다니까. 너는 지금 엉뚱한 물 위를 향해하고 있어. ㉠잘못된 기적을 쫓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초에 붙잡히고 말지.”

미짓은 노인이 자신의 팔을 놓아주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그만하기를 바라며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노인은 두 가지 바람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선장을 확인해야 해. 알아듣겠냐? 대개 사람들은 선장을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기적을 따라가다가 그냥 익사해버리고 말지. 그러니 결과가 나쁘다 해도 선장의 잘못은 아니야.”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빛이었다. 두개골 옆에 양초를 켜둔 것처럼 얼굴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노인이 미짓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다.

“기억해라. 어떤 이들은 누구보다도 손쉽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말이다.”

노인의 눈빛이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부는 바람처럼 흐릿해졌다.

“하지만 좋은 기적이 있고 나쁜 기적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그러니 넌 반드시 ㉡선장이 기뻐할 만한 일을 원해야 해.”

“무…… 뭐……?”

하지만 조셉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알아들었지. 반드시 선장이 기뻐할 만한 일을 원하고 바라야 하는 거야.”

노인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내뱉은 후 발을 질질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112~113쪽)

선장,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형을 위험에 빠뜨린 그 그림보다 더 강력한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머릿속엔 그 어두운 그림만 가득할 뿐이에요. ㉢선장, 처음부터 미러클 맨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했어야 해요. (281쪽)

▶ ㉠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덧붙이는 이야기(282~283쪽)를 읽고 공감되는 부분을 옮겨 쓰고 왜 공감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공감되는 부분	
그 이유	

2. 아래 두 입장 중 하나를 골라 소설의 결말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 미짓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의 결말이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

▶ 미짓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

3. 만약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결말로 마무리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만약 내가 작가였다면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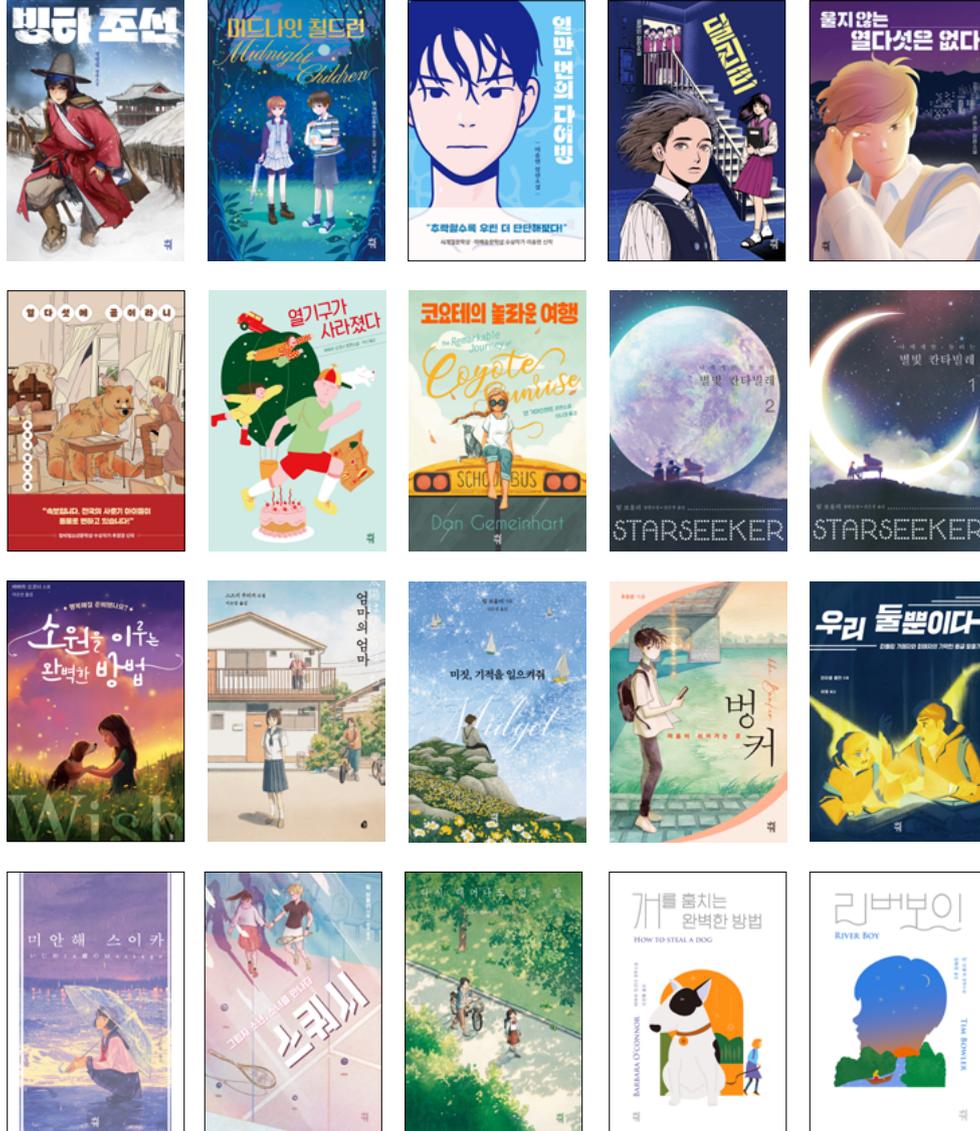
---

4. 새롭게 바꾼 결말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표지를 디자인해 봅시다.

[후면]	[책등]	[전면]

#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7 딜리트 실재인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             |